

합격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달리다 보면

제31회 관세사 시험 합격자  
관세사 현제현님

## 합격수기

### I. 머리말

안녕하세요?

2014년도 31기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현제현입니다.

합격수기는 수험생활에 있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저도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전에 합격한 분들의 합격수기를 모두 읽고 필요한 부분은 스크랩하여 두고두고 보고 합격을 하면 꼭 수기를 써서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저의 수기가 다른 분들보다 부족하더라도 읽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II. 수험생활 (2012년 10월 ~ 2014년 7월)

#### 1. 1차시험 2012년 10월 ~ 2013년 4월

저는 대학 3학년 2학기에 고민 끝에 관세사 시험을 지루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석이 지나는 동시에 학교에서 관세사 준비하는 친구의 조언을 얻어 인터넷강의로 회계와 무역영어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는 1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데 아침 8시까지 와서 인강과 수업을 병행 하면서 저녁 10시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집에 갑니다.

전 국제통상학과를 나왔지만 대학교 편입을 하였기 때문에 무역에 관한 지식이 없었고 1차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의 생활을 12월 학교 방학할 때까지 이어 갔습니다. 사실 이 때 거의 복습은 하지 못했고 인강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방학하고 난 뒤에 휴학을 하였습니다. 1월부터 집 근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관세법과 내세법 인강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여서 조금 조금함을 느끼고 공부시간을 좀 더 늘리고 점심 먹는 시간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은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신 것으로 먹고 저녁은 거의 빵 정도로 때운 것 같습니다. 보통 아침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도서관에 와서 저녁 11시 까지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부족한 회계와 무역영어에 대해서는 3시간정도 투자하고 내세법과 관세법은 골고루 분배하여 공부하였습니다. 기본강의는 모두 들었지만 문풀, 모의고사의 경우 회계만 들었습니다. 나머지 과목은 문제풀이 책만 사서 풀었습니다. 사실 회계 이외에는 문제풀이를 듣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2월이 지나고 3월 D학원에서 모의고사를 했는데 평균 60점 나와서 자신감을 좀 얻었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W학원이나 D학원 모의고사는 다 참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3월부터는 모든학원의 모의고사 문제 파일을 구해서 매일 하나씩 풀었고 틀린 문제는 오답노트에 적어 꾸준히 봤습니다.

4월도 이전과 같이 꾸준히 기본서 회독과 모의고사 오답문제 다시보기 등 더 이상의 지식은 늘리지 않았습니다. 시험 당일에 문제를 받고 푸는데 많이 아는 문제도 나오고 느낌이 좋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관세법 80, 무역영어 80, 내세법 90, 회계 65 점으로 무난히 1차는 통과하였습니다. 사실 1차시험의 경우 무역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열심히 한다는 가정하에 6개월 정도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실력에 도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뭐 운이 좋다면 3~4개월에 합격하시는 분들도 몇 분 봤습니다.

## 2. 2차시험

### (1) 2013년 5~6월

1차시험을 치루고 당일날 채점결과 합격사실을 알게 되고 난 뒤에 무작정 놀기 시작했습니다. 1차 기간에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술도 마시고 남은 2차시험을 위해 원 없이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기본이론을 수강하였습니다. 1차와 다르게 2차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시험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실강 종합반을 수강했습니다. 사실 학원 다니는 시간이 좀 아파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실강을 들었던 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5~6월에는 기본이론 수업듣고 복습만 계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사실 복습만 하는 것조차도 따라가기 벅했습니다.

(2) 2013년 7~10월

7~8월은 심화 개강기간인데 저는 실강을 수강하지 않고 그 당시 관세법, 무역실무, 관세평가만 심화를 인강으로 들었습니다. 전 실강보다는 인강이 맞아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인강 듣고도 집중을 잘하시면 인강 듣길 추천합니다. 실강의 경우 앞자리 맡기 위해서 한시간 전에 항상 가서 앉았는데 전 그 시간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HS는 심화를 안들었는데 그 이유는 HS는 복습을 다 하고 들을 생각으로 8월 즈음에 들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사실 이 기간에도 계속적으로 복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월쯤 다시 스터디를 하면서 스터디원과 많은 정보를 나눴고, 재미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스터디는 8~10월 초 까지 하고 개인공부의 부족으로 그만했습니다.

(3) 2013년 11~12월

1월부터 모의고사 치루기 2달 전부터 저는 스터디원 중 한 명과 모의고사 쓰기 연습을 했습니다. 모든 과목의 회독수도 어느 정도 되었고 11월부터 암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쓰기 연습을 했습니다. 만나서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만나서 하지는 않고 시간을 정해서 작성 하고 사진을 찍어 올리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의고사 치기 전에 했던 연습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FTA학원이 생겨서 관평과 무역실무 기본이론을 다시 한 번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문제풀이는 1월에 할 생각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4) 모의고사 기간 (2014년 1월~6월)

전 FTA학원에서 6개월 과정을 신청하였습니다. 1월 첫 모의고사 때 생각보다 기억이 너무 안나서 정말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명 중에 20등 정도를 하여서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월이 되면서 점점 등수가 떨어졌고 40등

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일희일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봤습니다. 반복반복반복을 계속하니 4월쯤 돼서 등수가 오르기 시작해서 2등까지 해봤습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5월이 되니 다년차분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등수가 떨어질까 걱정되었지만 10등 권에서 쪽 가게되니 더 자신감을 얻고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1~2월은 계속해오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였는데 도서관은 쉬는날도 있고 해서 독서실로 옮기기로 마음을 먹고 3월부터 독서실로 옮겼습니다. 독서실로 옮기고 나서 2주 정도는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 2주가 지나고 나서는 독서실이 내 집처럼 편안하고 공부도 잘됐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당시에 독서실로 옮기길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독서실로 옮긴 2주 빼고는 슬럼프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모의고사 6개월간 월~금요일까지 하루 15~16시간 독서실에 있고 12~13시간 정도 공부했습니다. 토요일 모의고사 치고 저녁에는 가족과 저녁과 간단한 술 한 잔 먹고 일요일은 늦잠자고 강평 듣고 독서실와서 6시간 정도 공부 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6개월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5) 2차시험 2014년 7월

모의고사가 다 끝나고 난 후에 2주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때 사실 집중은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3일에 1회독정도 하는 것으로 목표로 잡았습니다. 시험 전날 저녁 10시에 누웠지만 정말 잠이 오지 않아 새벽 2시 반까지 못 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2시간 반정도자고 5시에 일어나서 2차시험을 치렀습니다.

### III. 공부방법?

공부방법은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신이 맞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1. 1차시험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전 기본서 외독을 많이 하였고 문제를 많이 풀었습니다. 문제를 풀고 난 후에 오답노트는 꼭 정리해서 틀린 부분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회계의 경우는 반복입니다.. 계산기 사용할 때에도 회계사처럼 왼손으로 사용하려고 연습하였습니다. 1차는 노력만 하면 합격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 2. 2차시험

### (1) 관세법 (환특)

관세법은 제갈현근관세사님 기본, 심화, 문제풀이(1개월)을 수강하였습니다.

항상 관세사님이 강조하신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목차노트를 강조하셨는데 저의 경우 몇 번의 시도 끝에 A4용지에 반 접어서 왼쪽에는 목차 오른쪽에는 키워드를 넣고 키워드 넣고 문장을 생각하는 식의 공부를 모의고사 기간에는 했습니다. 관세법의 경우 쉽다고 생각하면 쉽지만 이번년도 출제방향을 보면 단순히 법조항을 쓰는 것이 아닌 법+이해+관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단순히 법만 외운다고 해서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즉 취지나 목적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 기본서 이외에 어떠한 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각학원 모의고사를 파일을 통해서 취지나 목적 같은 경우는 따로 기본서에 적어둔 것들이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환특법은 기본서외독시 보다가 본격적으로 암기는 1월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30분~1시간씩 공부했습니다.

### (2) HS

HS는 조전희관세사님 기본, 심화, 문제풀이(1개월) 수강하였습니다.

HS는 처음 접했을 때 이게 뭔가 싶기도하고.. 정말 막막했습니다. 작년 합격한 친구가 HS를 잘했기 때문에 친구의 방법을 무작정 따라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이론을 들을 당시에 정말 이해도 안하고 그냥 적어두기만 하고 우선 암기식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이해도 안하고... 암기식 따는 것도 무작정 따기엔 너무 힘이 들어서 친구가 공부했던 법령집을 빌려서 주와 호에 대해서 암기식을 다 만들었습니다.

친구책을 보면서 1회독을 하니 HS의 끝이 보이니 뭔지 모르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HS 1회독은 머나먼 바다와 같습니다 끝이 안보일 겁니다 그러니 우선 1회독을 하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서 심화를 들으며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해되기 시작했고 연결고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관세사님이 집어주신 해설서의 중요한 부분과 같이 보면서 암기를 했고 나중에는 법령집만 봤습니다. 정말 HS는 법령집 암기식을 통해서 28.29류 빼고는 다 외웠습니다.

모의고사 때에도 거의 제일 잘나왔던 과목이 HS일 정도로 법령집은 완벽하게 외운 것 같았습니다. HS는 처음이 힘듭니다. 처음에는 거부감도 들고 이걸 왜 외워야하나 싶기도 하고 그럴겁니다. 그 시기만 잘 견딘다면 HS는 제일 편안한 과목이 되고 쉽게 느껴질 겁니다. 다만 이번 시험 때 해설서가 많이 출제되어서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해설서문제는

하나도 찍지 않고 63.5점 맞았습니다. 해설서를 완벽하게 공부할지 안할지에 대한 것은 본인이 선택할 일인 것 같습니다.

### (3) 관세평가

관세평가.. 정답이 없는 어려운 과목입니다. 김00관세사님 기본, 심화, 문풀(2개월)듣고 김병수관세사님 기본, 문풀(1개월)을 수강하였습니다. 관세평가는 강사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강사를 찾아서 수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으시면 두 분 정도는 들어서 조금 더 이해를 명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FTA학원에서 모의고사를 치루면서 완전히 김병수관세사님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보지도 않던 협정을 봤는데 협정집을 본 것이 아닌 모의고사에서 나온 협정을 제 나름의 서브를 만들어서 봤습니다. 1~2월간 문제풀이를 하면서 전 과목 중 관세평가만 서브를 만들었습니다. 모의고사를 치루면서 계속해서 이 문제 나오면 법조문, 협정관련해서 쓸 것들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치루면서 계속 반복해서 봤습니다.

김병수관세사님 모의고사 문제는 어렵습니다. 1~4월까지 관세평가 40점을 넘겨본 기억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관세사님이 5월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강조하셨고 5월부터 점수가 오르기 시작하여 시험 전에는 2등까지 해봤습니다. 관세평가는 협정이든 법조문이든 중요하지만 협정에만 너무 치중해서는 안 되고 법령이 우선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과 다르게 법령을 완벽하게 암기하셔야합니다.

다른과목과 다르게 관세평가의 경우만 모의고사 문제를 따로 모아놔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생각했습니다. 관세평가는 많은 사례를 보시고 접하시길 바랍니다.

### (4) 무역실무 (대외,외환)

무역실무는 최00관세사님 기본, 박병호관세사님 기본, 심화, 문풀(1달), 최권수 관세사님 최종정리를 수강했습니다. 무역실무는 제가 제일 어려워하던 과목이 없습니다.

너무 방대하고 단순히 암기가 아닌 정말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같이 단순 암기에 찌든 사람들은 힘들었던 과목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치루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치면서도 계속해서 기본서 외독을 하고 나중에는 기본서의 양이 많아서 박병호

관세사님의 요약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요약집은 정말 요약된 거라 시험질 때 못 푸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해를 잘 하시면 무역실무는 쉬운 과목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완벽암기가 필요 없는 과목이고 목차 또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하세요. 그럼 고득점 예상합니다.

대외, 외환의 경우 정00관세사님 강의를 수강했는데 외환은 포기상태였고 대외의 경우 일단 지금까지 출제된 것 배제하고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들은 임의적으로 배제하였습니다. 시험 때 정말 위험했지만 다행이.. 아는 문제가 나와서 대외는 작성하고 외환은 못 풀고 시험을 봤습니다.

#### IV. 모의고사

모의고사를 6개월간 수강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초시생이라면 6개월간 커리큘럼을 따라가길 추천합니다. 모의고사를 치루면서 얻은 가장 큰 것은 시간분배와 순간적인 판단력입니다. 모의고사 때 항상 50점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40분안에 풀려고 노력했고 나머지 시간은 10점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도 1교시 관세법 때 모의고사와 쓰는 방식이 다른 유형의 문제를 접했을 때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손이 먼저 가는 느낌? 으로 작성했습니다. 50점도 딱 40분 안에 쓰고 나머지 10점을 다 작성했을 때에도 3분정도 남았습니다.

모의고사를 만약에 안했다면 그런 판단력과 시간분배를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어디서 치룰지 고민이시면 우선적으로 사람 많은 학원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표본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점수가 잘나온다면 자신감이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있으시다면 어쩔 수 없으시겠지만... 여유가 있으시다면 금전적인 부분은 생각마시고 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해서 장학금은 꼭 타시길 바랍니다. 전 6개월 동안 장학금을 탔습니다^^

## V. 실제시험

저는 실제 시험 때 관세법 62, HS 63.5, 관세평가40.5, 무역실무 56.5 총점 55.62를 득점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 했죠? 관세법은 6문제 다 풀었지만 법외의 부분이 조금 부실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관세법의 경우에는 묻는 것이 많아 시간배분을 잘했다면 점수를 잘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도 법을 쓸 때도 많이는 아니지만 핵심만 파악하여 요약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러니 15페이지 반정도 작성하고 3분정도 남았습니다. HS의 경우 해설서 문제가 많았지만 모든 사람이 못 쓸것이라 생각하고 모두 백지로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는 다 풀고 의류문제만 예상치 못한 것이 나와서 반정도만 작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반정도 쓴 것 같고 점수는 63.5 나왔습니다. 관세평가는 꼼꼼했습니다. 50점 판단 하나 틀려서 답 틀리고 6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 정말 힘들게 작성하고 맨 마지막 6번도 계산이 틀렸습니다. 그때 15페이지 쓴 것 같고 점수는...40.5 나왔습니다. 3교시 때 정말 등에서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관평은 다른 친구들 점수를 보니 풀이과정이나 판단만 잘 맞으면 답이 다르거나 잘못 되도 점수를 받는 것 같습니다. 무역실무의 경우 50점 주심방식이 다행이 꾸준히 계속적으로 공부했던 부분이어서 쉽게 작성했지만 10점 분량으로만 준비했던 것이라 답안을 늘리는데 노력했습니다. 10점의 경우 보험증권은 공부를 안했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대충 유추하여 썰풀고.. 외환은 백지로 남겨놓고 다른 문제는 다 풀었습니다. 14페이지 정도 작성한 것 같습니다. 점수는 56.5 나왔는데 무역실무도 또한 출제자가 묻고자하는 방향만 잘 설정 하였다면 무난히 점수를 받습니다.

시험이 다 끝나고 보니 관평 과락만 넘기면 합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시험에서는 정말 모의고사와 다릅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불안감.. 긴장감등.. 다 이겨내시면 모의고사 때의 느낌으로 문제를 작성할 수 있으실겁니다.

저의 경우도 관세법 볼 땐 손을 떨면서 글씨를 썼는데 1교시 끝나니 모의고사때 느낌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점심의 경우 어머니가 김밥을 싸주셔서 김밥 먹고 지인과 대화하면서 긴장을 풀었습니다.

## VI. 시험에 관한 나의 생각

전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 하지 못했어요. 제가 학교 편입을 하고 관세사 공부를 시작한 계기는 내가 아무런 발전이 없으면 초라한 인생을 살게 될것이 눈에 띄게 보였기 때문인데 한번 사는거 뭔가 이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였고 공부 중에는 좌절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제가 합격하고 난 후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내 나이가 지금 몇살인데 2년 후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고..그때 되면 취업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지 않냐고..” 그러는데 전 그 사람한테 관세사공부 시작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시 공부를 시작할 때의 그 불안감은 누구나 오지만 저는 시험공부 시작한 후 시험을 치기 전까지는 모의고사가 잘 나오든 못나오든 난 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인지 더 절실해지고 열심히하게 됐죠. 자만심이 아닌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의고사 잘나온다고 절 때 자만해서는 안되고요.

어쨌든 내가 이 시험을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플랜B 같은 것도 세우지 말고 무조건 달리세요. 플랜B는 시험치고 난후에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정말 노력하세요 그럼 합격할거예요. 남들보다 열심히 하시면 되요. 이 시험은 운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면 운도 따라 줄 것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내 머리가 나쁘다고,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세요. 그게 답이에요.

## VII. 수기를 마치며..

제 보잘 것 없는 수기를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제가 글을 잘 못쓰는데 “이런사람이 어떻게 합격했지? 나도 합격할 수 있겠는데?” 라는 자신감을 얻고 공부하시길 바래요^^ 제 수기가 도움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생각하고 결정한 길이라면 내가 시험을 보고 나왔을 때 난 후회없이 공부해서 시험을 봤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끝까지 달리셔서 좋은 결실 맺길 바랍니다. 파이팅하세요!!

전 시험이 끝나고 모든 것을 다 잊을 정도로 신나게 놀아서 공부했던 것들이 자세히 기억이 안나요. 혹시 더 필요한 것이 있으시다면 따로 연락주세요^^  
그럼 이만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1기 관세사 현제현 드림

FTA  
관세무역학원